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① 독도: Dok-do
- ② 반구대: Ban-gudae
- ③ 독립문: Dok-rip-mun
- ④ 인왕리: Inwang-ri

01 ② 국어생활-로마자 표기법

‘반구대’가 ‘Ban-gudea’, ‘Bang-udae’로 발음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독도’의 ‘도’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므로 ‘Dokdo’로 표기한다.
- ③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므로 ‘독립문’은 발음 [동님문]에 따라 ‘Dongnimmun’으로 표기한다.
- ④ ‘인왕리’의 로마자 표기인 ‘Inwang-ri’는 ‘인왕’의 표준 발음인 [이낭]에 따라 적고, ‘리’의 행정 구역 단위는 ‘ri’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의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바로 ‘언간’에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性別)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內簡)’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보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①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이 보인다.
- ②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 ③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 ④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02 ② 비문학-중심 내용 파악

제시 글의 중심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사용자의 성별(性別)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內簡)’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으나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제시 글의 중심내용은 ②가 적절하다.

3.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 (나)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 (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 (라)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국민을 설득했다.

- ① (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은 국어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을 주격조사 ‘이’로 바꿔 쓴다.
- ② (나): 직접 인용문 다음이므로 인용 조사는 ‘고’가 아니라 ‘라고’를 쓴다.
- ③ (다): 어미 ‘-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꿔 쓴다.
- ④ (라):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 ‘로써’로 바꿔 쓴다.

03 현대문법-조사와 어미의 용법

③의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고’는 앞뒤를 연결하며 어떤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예를 들어 ‘신문을 보며(면서) 밥을 먹었다’에서처럼 연결어미 ‘-며’와 ‘-면서’가 동작의 동시성을 알린다면 ‘-고’는 지속성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 ① 보조사 ‘은/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이 대조적 의미가 되므로 주격조사 ‘이’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 ②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라고’이므로 고쳐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 ④ ‘로서’와 ‘로써’는 구분하여 써야 한다. ‘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이고, ‘로써’는 재료,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때 쓰인다.

4. <보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을 말한다. 초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하위 내용들로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사람들은 대개 수학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바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하시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이다. 수학 선생님은 유머로 딱딱한 수학 시간을 웃음바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다로 만들곤 한다. ㉠줄리는 오후 시간에 뜬금없이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설명한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의 인기가 시들 줄 모른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 ㉢내 수학 성적이 좋아진 것도 수학 선생님의 재미있는 수업 덕택이다.

- ① ㉠ ② ㉡ ③ ㉢ ④ ㉣

04 ③ 비문학-단락의 통일성

제시 글의 내용은 ‘나’는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 시간이 재있다는 글이다. 따라서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잘 한다는 내용은 글의 내용과 통일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마음 베어 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
구만 리 장천(長天)의 번듯이 걸쳐 있어
고운 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나)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 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 ① (가)의 ‘장천(長天)’은 사랑하는 임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② (가)의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아가씨’는 소극적인 태도로 정서를 드러낸다.
③ (가)의 ‘고운 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④ (가)와 (나)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05 ② 고전문학-고전 시가의 작품 이해

(가)의 ‘나’는 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달로 만들어 임금이 계신 궁궐에 비추어 임금께 전하고 싶다는 적극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아가씨’는 임과 이별하고, 문을 닫고는 눈물 흘리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장천’은 화자의 마음을 걸어 두는 공간이며, 임은 궁궐에 있다.
③ (가)의 ‘고운 님’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아가씨’는 화자의 관찰 대상이다.
④ (가)의 ‘달’은 화자의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나)의 ‘달’은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이별의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출전

(가) 정철의 시조

1. 해제: 이 시조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칼로 베어 내어 달을 만들어서 임금이 계신 궁궐에 비추므로써, 자신의 충정(衷情)을 임금께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2. 핵심정리
1) 성격 : 연군가(戀君歌)
2) 주제 : 선조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정(忠情)
3) 어구 풀이
• 달: 임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직접 보여 드리고 싶은 작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에 자주 보인다.
• 구만 리 장천(九萬里長天): 끝도 없이 높고 넓은 하늘.
• 번듯이: 번듯하게. 뚜렷하게.
• 고운 님: 사랑하는 임. 여기서는 선조 임금을 의미한다.

(나) 임제의 ‘무어별’

- 1) 갈래: 한시. 오언절구
2) 성격: 애상적. 관찰적
3) 어조: 임과 헤어진 여인의 안타까운 목소리
4) 특징:
① ‘규원(閨怨)’이라는 부제로 전함
② 화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소녀를 객관적으로 그림(이별의 상황 묘사)
③ ‘배꽃’과 ‘달’은 애상적 분위기 형성(이별의 안타까움을 더함)한다.
④ 간결한 표현과 환상적 분위기
5) 시적화자의 정서: 임과의 이별한 열다섯 소녀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연민, 애상감
6) 이 시의 화자 설정과 그 효과
• 기구, 승구: 15세 소녀를 시적 주인공으로 삼아 부끄러워 말도 못 하는 모습으로 이별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냄.
• 전구: 임을 보내고 방에 숨어 남 몰래 눈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을 제시하여 이별의 슬픔을 나타냄.
• 결구: ‘배꽃처럼 하얀 달’은 작품의 배경 구실을 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함.
7) 주제: 이별의 한(恨). 임과 이별한 어린 소녀의 애틋한 마음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윽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協商)’이다.

- ① 협상(協商: 協 화합할 협/商 장사(헤아리다) 상)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 ② 협조(協助: 協 화합할 협/助 도울 조) 힘을 보태어 도움.
- ③ 협주(協奏: 協 화합할 협/奏 아릴 주) 두 개 이상의 악기로써 동시에 연주하는 일
- ④ 협찬(協贊: 協 화합할 협/贊 도울 찬) ㉠힘을 합하여 도움.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09 ① 한문-한자 어휘

①의 ‘교정(校訂)’은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① 교정(校訂: 校 학교 교/訂 바로잡을 정)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동음이의어]

• 교정(矯正: 矯 바로잡을 교/正 바를 정)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

② 교차(交差)→교차(交叉)

- 교차(交叉: 交 사귄 교/叉 갈래 차)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차(差: 어긋날 차)

③ 결제(決濟)→결재(決裁)

‘결재(決裁)’와 ‘결제(決濟)’는 의미 차이가 있다.

- 결재(決裁: 決 결단할 결/裁 마를(결단하다, 헤아리다) 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 결제(決濟: 決 결단할 결/濟 건널(돕다, 더하다) 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④ 제고(提高)→재고(再考)

- 제고(提高: 提 끌 제/高 높을 고) 쳐들어 높임.
- 재고(再考: 再 두 재/考 생각할(살피다) 고)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10.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함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결함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 ① ㉠-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 ② ㉡-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 ③ ㉢-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 ④ ㉡-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10 ② 비문학-논리의 오류

②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부패’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분리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애매어의 오류이다.

[오답 풀이]

- ①은 올바른 연역추론이다.
- ③은 분해의 오류
- ④는 결함의 오류이다.

11.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11 ③ 비문학-글의 전개방식

제시 글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를 건축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글이다. ③도 목적을 지닌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 유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창과 같은'에서 직유법이 쓰였다.
- ② 소설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이다.
- ④ 학문적으로 출중한 사라들에 대한 예시가 쓰였다.

1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 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 ②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12 ② 비문학-내용 확인하기

고갱이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것을 열망'했다고 하였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던 세잔, 고흐, 고갱에 대한 설명이다.
- ③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미술의 강렬한 정



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④ 첫 번째 문장에서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라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처럼 좋은 걸 어떡해?
- ② 제 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 ③ 공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되었다.
- ④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13 ② 국어생활-띄어쓰기

②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제(第)'는 접두사이므로 뒤말과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걸'은 '것을'의 준말이고,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③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④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차(次)'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14.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깍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는'으로 발음된다.
- ② '깍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깍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깍꼬'로 발음된다.
- ④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깍찌'로 발음된다.

14 ① 현대문법-음운의 변동

①의 '깡는'은 [깡는(음절의 끝소리규칙)→깡는(자음동화)]으로 발음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동화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깍아[까까]'는 연음법칙이다.
- ③ '깍고[깍꼬(음절의 끝소리규칙)→깍꼬(된소리 되기)]'는 음운 교체현상이다.
- ④ '깍지[깍찌(음절의 끝소리규칙)→깍찌(된소리되기)]'는 음운 교체 현상이다.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휴먼’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보스트롬은 건강 수명, 인지, 감정이라는, 인간의 세 가지 주요 능력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엄청나게 넘어설 경우 이를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젊음과 활력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존재는 스스로의 심리 상태에 대한 조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피곤함이나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미움과 같은 감정을 피하고, 즐거움, 사랑, 미적 감수성, 평정 등의 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를 버리고 슈퍼컴퓨터 안의 정보 패턴으로 살기를 선택한 업로드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생물학적 인간에 대한 개선들이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생물학적 인간이 포스트휴먼이 되고자 한다면 유전 공학, 신경약리학, 항노화술, 컴퓨터-신경 인터페이스, 기억 향상 약물,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나 신체에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을 법한 슈퍼 인간의 모습을 기술한 용어이다.

- ① 포스트휴먼은 건강 수명, 인지 능력,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 ②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형태가 어떠할지 여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열려 있다.
- ③ 포스트휴먼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완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 ④ 포스트휴먼 개념에 따라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의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15 ③ 비문학-내용추론하기

- ③ 포스트휴먼은 기본적인 능력이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 기술로 보완’한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태’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 ② 세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다.

- ④ 세 번째 단락에서 ‘다양한 과학 기술을 이해~기술적 변형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6. 반의 관계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크다/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 ② ‘출발/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 ③ ‘참/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함의한다.
- ④ ‘넓다/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한다.

16 ① 비문학-어휘의 의미관계(반의관계)

- ①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되는 반의어는 상보반의어이다. 그러나 ‘크다/작다’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으며 중간 상태가 있는 등급(정도)반의어이다.

[오답 풀이]

- ②는 방향 반의어, ③은 상보반의어, ④는 등급반의어이다.

[참고] 반의어

1. 등급반의어

- 1)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양쪽 극단에 있고 그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반의어
- 2) 한 쪽을 부정하는 것이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은 아님
예) 높지 않다 ≠ 낮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처럼 동시 부정 가능
- 3)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다른 단어를 부정한 문장을 일방 적으로 함의
예) ‘저 산은 높다’는 ‘저 산은 낮지 않다’를 함의. 그러나 반대 방향, 즉 ‘저 산은 낮지 않다’는 ‘저 산은 높다’를 함의 하지 않음
- 4)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도 가능
예) 저 산은 매우 높다 / 백두산이 금강산보다 더 높다
- 5) 등급 반의어 예
높다-낮다, 넓다-좁다, 많다-적다, 크다-작다, 무겁다-가볍다, 빠르다-느리다, 높다-짧다, 두껍다-얇다, 굵다-가늘다, 밝다-어둡다

2. 상보반의어

- 1)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둘 로 나누어지는 반의어
- 2) 한 쪽을 부정하면 곧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임
예)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다’처럼 동시 부정 불가능
- 3)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다른 단어를 부정한 문장을 상호 함의
예) ‘저 사람은 남성이다’라고 하면 여성이 아님을 함의. ‘저 사람은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남성임을 함의
- 4)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불가
예) 군인이 매우 죽었다(×)
- 5) 일부는 상보 반의어의 특성을 지니고 일부는 등급 반의어의 특성을 지니는 반의어도 있음
예) 깨끗하다-더럽다, 맞다-틀리다, 안전하다-위험하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
- 6)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다른 단어를 부정한 문장을 상호 함의한다는 점에서 상보 반의어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예 '이 방은 깨끗하다'라고 하면 더럽지 않음을 함의. '이 방은 더럽지 않다'라고 하면 깨끗함을 함의

7)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등급 반의어

예 이 방은 매우 깨끗하다/안방이 건넌방보다 더 깨끗하다

8) 상보 반의어의 예

남성-여성, 참-거짓, 살다-죽다, 있다-없다, 알다-모르다, 출석하다-결석하다, 생물-무생물, 합격하다-불합격하다

3. 방향반의어

1)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반의어

(1) 역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 반의어

예 아래-위, 오른쪽-왼쪽, 부모-자식, 형-아우, 상관-부하, 주다-받다, 사다-팔다

(2) 역행 관계에 있는 반의어: 두 단어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반의어

예 가다-오다, 열다-닫다, 오르다-내리다, 늘다-줄다, 팽창하다-수축하다

(3) 대척 관계에 있는 반의어: 두 단어가 방향의 양쪽 끝을 나타내는 반의어

예 시작-끝, 꼭대기-밑바닥, 지붕-바닥, 천당-지옥, 우등생-낙제생

(4) 대응 관계에 있는 반의어: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호 방향이 다른 쪽을 나타내는 반의어

예 볼록거울-오목거울, 양각-음각, 수나사-암나사, 이랑-고랑

미이다.

※출전: 용비어천가 13장

1. 고사

주나라 무왕이 문왕을 이어 즉위함에 많은 제후들이 모두가 주를 치라고 권했으나 무왕은 천명을 모른다 하여 거절했다. 그러나 이년이 지나도 주의 학정은 점점 더해갔으므로, 무왕은 내 꿈으로 보나, 내 점으로 보나 하늘의 뜻이 내게 있다하고 드디어 주를 치게 된 것이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무렵, 나무 아들(=李)이 나라를 얻을 것이란 노래가 있었고, 또 이성계에게 임금에 되기를 권한 사람도 많았으나, 이 성계가 하늘의 뜻을 모른다하여 거절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성계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금으로 된 자를 주면서,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했으므로 드디어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어휘 풀이

• 말쌈울 : 말쌈+울(목적격조사)

• 술북리 : 사뢰는(여쭙는) 사람이. '술다'가 원형.

'술다'는 '사뢰다'의 옛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숯'로 나타난다.

숯+울(관형사형 어미)+이(의존명사)+[zero 주격]

• 하되 : 많되

• 의심하실씩 : 의심하므로

• 뵈아시니 : 보이시니, 밝히시니, 재촉하시도다.

기본형은 '뵈아다'로서 '재촉하다(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다)'의 옛말. '뵈아(어간)+시(주체높임선어말 어미)+니'의 구성이다.

• 놀애를 : 노래를

• 부르리 : 부를 이. 부르는 사람이. 부르>부르(원순모음화)

• 모릅실씩 : 모르시므로, 모른다(不知), 모른다(乾乾, 裁裁)

• 알외시니 : 알리셨습니다, 깨우치시도다. '알외다'가 '알리다'의 뜻에서 '여쭙다'로 변한 것은 '사뢰다'에서 유추된 것임.

'알+외(이중사동접사)+시(높임 선어말 어미)+니'의 구성으로 이때의 '-외-'는 '오+이'의 이중사동접사이다.

17.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말쌈을 ㉠술북리 하되 天命을 疑心하실씩 꾸므로 ㉡뵈아시니 놀애를 부르리 ㉢하되 天命을 모릅실씩 꾸므로 ㉣알외시니

(말쌈을 아뢴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의심하시므로 꿈으로 재촉하시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天命을 모르므로 꿈으로 알리시니)

- 용비어천가 13장 -

① ㉠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② ㉡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③ ㉢에서 '-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한다.

④ ㉣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기능한다.

17 ④ 고전문법

㉣의 '알외다'는 '알리다. 아뢰다'의 옛말이다.

'알+외(이중사동접사)+시(높임 선어말 어미)+니'의 구성으로 이때의 '-외-'는 '오+이'의 이중사동접사이다.

[오답 풀이]

① '술북리'는 '숯(어간)+울(관형사형 어미) 이(의존명사)+[zero 주격]'의 구성으로서, 이때의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주격조사가 아니다.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zero 주격이다.

② 기본형은 '뵈아다'는 '재촉하다(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다)'의 옛말이다 '뵈아(어간)+시(높임선어말 어미)+니(어미)'의 구성이다.

③ '되'는 '이유'가 아닌 앞, 뒤 대립적인 사실을 잇는 데 쓰는 연결 어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동양의 음식 중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송편은 반달의 모습을 본뜬 음식으로 풍년과 발전을 상징한다. 삼국사기 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속에서 파낸 거북이 등에 쓰여 있는 '백제는 만월(滿月)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백제는 만월이라서 다음 날부터 쇠퇴하고 신라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징표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술가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때부터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의 떡으로 빚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반달이 아닌 보름달 모양의 월병을 빚어 즐겨 먹었다. 옛날에 월병은 송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점차 제례 음식으로서 위상을 잃었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눠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보름달 모양의 월병은 둥근 원탁에 온가족이 모인 것을 상징한다. 한국에서 지역의 단합을 위해 수천 명 분의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월병을 만들 정도로 이는 의미 있는 음식으로 대접 받고 있다.

2018. 04. 07.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삼국사기 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 ②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떠 만든 음식이다.
- ③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다 .
- ④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8 ③ 비문학-내용확인하기

첫 번째 단락에서 신라인들은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러한 뜻을 담아 송편도 반달 모양’으로 빚었다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였다. 이윽고 한 중이 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더라. 엄숙하게 자리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山野)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를 드리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여 왈, “사부는 어디에서 오신고?” 중이 웃으며 왈, “평생의 낮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잘 잊는다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냐?” 중이 박장대소하고 말하되, “옳다. 옳다. 비록 옳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더뇨?” 승상이 어리둥절하여 말하되, “소유가 ㉣열대여섯 살 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고, 열여섯에 급제하여 줄곧 벼슬을 하였으니 동으로 연국에 사신을 갔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일찍이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십 년을 함께 살았으리오?” 중이 웃으며 왈, “상공이 아직 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이 왈, “사부는 어떻게 하면 소유를 춘몽에게 깨게 하리오?” 중이 왈, “어렵지 않으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돌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 질러 말하되, “사부는 어찌 소유를 정도로 인도하지 않고 환술(幻術)로 희롱하나뇨?” 대답을 듣기도 전에 구름이 날아가니 중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 김만중, 구운몽

19. ㉠~㉣을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19 ③ 고전문학-사건의 순서

㉡은 중(산야 사람)과 양소유(성진)이 함께 살던 때 → ㉢은 꿈속 양소유의 시기→㉣은 양소유가 꿈속에서 중을 만남 → ㉠은 현재 중과 양소유의 만남의 순서이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상’은 꿈에 남악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 ② ‘승상’은 본디 남악에서 ‘중’의 문하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하 뒤 꿈에서 깨게 된다.
- ③ ‘승상’은 ‘중’이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한 환술을 부렸음을 확인하고서 그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④ ‘승상’은 능파 낭자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서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20 ① 고전문학-내용 확인하기

제시 지문에서 ‘승상이 자세히 보니 낮이 익은 듯하거늘’,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등의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승상’은 춘몽에서 깨지 못한다.
- ③ ‘승상’은 중의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 ④ ‘승상’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이라는 내용도 없고,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